

# 중국이 한국의 항일운동과 분단 역사를 소환하는 시각에 대한 소고

## - '항일소설'과 '항미원조' 영화를 중심으로

김 경 석

(경희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근대 이전 중국은 한국과 봉건적인 주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한·중관계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에게 침탈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제국주의 열강의 무력에 의해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중국과 한국은 항일운동이라는 유사한 근대사적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두 나라는 동병상련적인 연대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감과 역사 의식은 소설과 영화 등 다양한 문예작품으로 재현된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중국은 국공내전,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이념의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전쟁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제적 연대라는 명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항미원조' 기억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 역사는 소거되고 있다. 이러한 소거는 항미원조를 소재로 한 주선울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21세기 중국이 가지게 된 G2의 국제적 위상과 미중관계의 악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근대 이후 소설과 영화 등, 중국문예가 한국의 항일운동과 분단 역사를 소환하는 시각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 조선인식, 항일운동, 한국전쟁, 분단역사, 주선울영화, 항미원조

## 1. 머리말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기에 우리나라의 다수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김종훈(2023:4)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 의회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7000명이 전사했다”고 말했다

연설 직후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과 세계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기사를 보면 윤대통령의 ‘장진호전투’발언에 대해 중국외교부는 매우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부의 발언이 있는 직후, 중국관영매체인 CCTV 제7채널에 4월30일 밤9시54분에 「압록강을 건너」<sup>1)</sup>를 긴급 편성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는 기적”이라는 언급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까지 ‘항미원조’는 한국 국민들에게 생소한 말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기원 논쟁이 확산되면서 항미원조는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말이 되었다.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은 2020년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그 현대사적 의미가 격상되었다. 한담(2023)은 이에 대해, 항미원조는 한반도의 전쟁이 아닌, 중국이 미국에 맞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 최근 제작된 ‘항미원조’물은 미군을 반면인물로 흑화하여 대중들의 반미(反美)정서를 선동하고 저항적 내셔널리

---

1) 「압록강을 건너」는 중국 관영CCTV가 총 40부작으로 제작해 2020년 12월부터 방송한 대하드라마이다.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철저히 중국의 시각에서 해석한 드라마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4월30일부터 재방영될 예정이다.

즘을 고취시키는 홍보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문화정책으로서 항미원조를 소환하게 된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서구식 시장경제체를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수용하던 1980년대에 항미원조는 오히려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죽(竹)의 장막’을 거두어 버리고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편입하려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갈등의 소지가 되는 역사를 소환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두 나라간 패권 다툼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무력시위로 치닫는 단계에 들어섰고 중국은 ‘항미원조’라는 이전의 불편한 역사를 소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항미원조’는 한국을 의식하기 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비극의 전장은 한반도였으며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인<sup>2)</sup>이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외세 열강의 무력에 의한 강제 개항 이후, 식민침탈과 이념대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두 나라는 동병상련(同病相憐)적인 연대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감은 다양한 문예작품 속에 묘사되고 형상화된다. 오랜 역사기간을 주종적 관계로 지속해오던 두 나라가 제국의 침탈과 저항의 과정에서 생성된 연대감은 문예작품 속에서 대등하면서도 수직적인,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역사의 일제강점기, 중국의 항일전쟁시기에 중국문단 역시 항일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다수 발표되었고, 공간적 배경은 주로 만주지역의 동북삼성<sup>3)</sup>을 무대로 한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형상 가운데는 자연히 한인들이 다수 등장하며, 이들은 중국의 동북항일투쟁에 동참하는 인물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조선과 중국의 동병상련적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

---

2) 본고를 들어가면서 Korean을 무엇으로 지칭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선행한다. 본고는 조선왕정시기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시기와 현재에 이르는 역사시기의 현상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호칭의 문제가 발생한다. 100여년의 근현대사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한인, 조선인,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 남한인 등 다층적인 호칭이 명멸(明滅)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인으로 통칭하되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한다.

3) 동북삼성은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을 지칭한다.

하는 것이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중국은 국공내전이라는 이념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입한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조선은 이념의 대립에서 비롯된 혹독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동족상잔과 한반도 분단으로 막을 내린 한국전쟁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중관계를 의식하여 이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향미원조를 내세우는 다량의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제작되는 향미원조 영화에서 한국전쟁은 어떤 의미로 소환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인이 한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 김경석(2012:9)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한인을 묘사한 중국문학작품의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역사적 사건’과 ‘작가의 시각’을 들 수 있다. 창작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역사적 사건에 따른 구분은 1919년 3.1운동 시기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이며, 작가의 시각에 따른 구분은 중국인 작가의 시각과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작가의 시각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지난(至難)한 경험이었던 항일운동과 민족분단이라는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중국이 소환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II. 본론

### 1. 주종에서 동지적 연대로

중국은 청나라 말기까지 조선과 조공관계를 지속해왔고, 조선 역시 중화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중국을 상위국으로 하는 동북아의 외교질서를 수용해왔다. 근대 이전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전통적인 조공관계로 양국관계는 정치적·외교적 복종의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는 경제적 종속을 의미하는 근대 제국주의적 지배와는 다른 것이었다. 클라우스 뮐한(2023)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제국의 정통성은 덕이 있는 통치자에게 수여되는 천명에서 나왔다. 국내의 재난뿐 아니라 외국의 위협도 천명의 기초를 약화할 수 있었다. …… 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했다.

박명희(2011)는 이에 대해 청은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의례(儀禮)적인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외관계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청나라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조선에 대해 정치, 외교, 군사, 사회제도 등, 전방위적 간섭을 시도하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급변하는 동북아의 국제관계 속에서도 중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의 조선침략을 조선인에게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4시기 신문화운동의 견인자 역할을 담당했던 『신청년』을 창간하고 맑스주의를 중국에 전파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창당의 산파 역할을 했던 천두슈(陳獨秀)는 「애국심과 자각심(愛國心與自覺心)」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조선은 나라가 작고 국민이 게으르며 예로부터 남의 속국으로서 군신이 탐욕스럽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다. 일본에 합병된 후 나라정치가 흥하기 시작하고 도적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송사가 없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가장 큰 행복이다. 하지만, 꼭 옛 군주를 복귀하려 할 것이며 강한 이웃들에게 항쟁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손해만 보고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김경석(2012)은 조선에 대한 천두슈의 언급을 주목하면서 당시 조선을 바라보던 중국인의 시각은 진보와 수구를 막론하고 모두 조선의 민족성은 매우 열등하게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 중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주변국 담론은 배타적인 중화적 세계관의 한계를 드러

내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열강은 아편전쟁 이후 지속해오던 중국의 이권을 관리할 수 없었고, 이 공백을 일본이 파고 들었다. 전쟁 다음 해인 1919년 2월, 파리강화회담에서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각종 이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중국은 기대하였으나, 중국인들의 희망은 좌절되고 중국 역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1919년 3월1일 조선에서 민중이 중심이 되는 전국적인 항일운동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일본의 조선강제합병에 대해서 일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던 천두슈는 3·1운동 이후 전혀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 그는 1919년 3월23일 『매주평론(每週評論)』에 지안(只眼)이라는 필명으로 「조선독립운동지감상(朝鮮獨立運動之感想)」을 게재하여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절실하며, 비장하고 명료하며, 정확한 관념이 있다. 민의에 의거할 뿐, 무력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세계혁명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찬미와 哀傷, 흥분, 희망, 부끄러움 등 갖가지 감상을 갖게 된다.

천두슈는 일본의 침략정책을 몇몇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 백년간 지속되어온 중국과 한국의 주종관계를 성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19년 3월 9일 『매주평론』에 게재한 「인종차별대우문제(人種差別待遇問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황인종이 백인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다면, 황인종이 우리 황인종에 대해서 우선 평등한 대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 황인종들끼리 무슨 중국의 지위는 특별하다든지, 조선과의 주종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없다면 무슨 면목으로 백인들을 향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인가?

여기서 인종적 연대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중화사상적 세계관으로는 중국과 조선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

다. 더 나아가서 중국이 직면한 외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화주의적 대외관계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중국 지식인들의 조선인식을 ‘우월적 주종관계’에서 ‘동지적 연대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sup>4)</sup> 김경석(2011)은 이에 대해 곧 일본제국주의라는 외부모순을 놓고 조선과 중국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게 된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항일소설’속의 한인 - 저항적 형상의 소환

김경석(2012)은 중국문학 작품 가운데 한인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은 약 300 여 편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 중 26편의 작품은 1920년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이고 이들 작품들은 그 이전의 기록 속에 묘사되고 있는 한인상과는 매우 대조적인 한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문단에는 항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된다. 이와 같은 항일소설<sup>5)</sup> 가운데 다수의 작품은 만주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만주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이 작품들 속에는 한인형상이 등장한다. 중국현대문학 연구자 황수지(1990)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의 역사는 유구하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많은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서 한국민족의 삶에 대한 묘사를 찾아낼 수 있다. 중국 현대문학사상 첫 번째 낭만주의 소설인 귀모뤄(郭沫若)의 「목양애화(牧羊哀話)」는 곧 조선시대 이야기이다. 귀 선생이 한국인의 이야기를 빌려 자신의 반제 애국적 격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

4) 물론 3.1운동 이전에 안중근의 이토히로부미 저격 사건 역시 중국인들의 조선인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5) 중국현대문학사에서 ‘항일소설’보다는 ‘국방문학(國防文學)’, ‘구망문학(救亡文學)’ 또는 ‘항전문학(抗戰文學)’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항일소설’이라고 쓰기로 한다.

황슈지는 귀모뤄가 「목양애화」에서 “자신의 반제 애국적 걱정”<sup>6)</sup>을 한인과의 연대적 정서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황슈지는 귀모뤄의 소설 외에도 동북작가군<sup>7)</sup>의 대표 작품으로 수쥘(舒群)의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 샤오쥘(蕭軍)의 「8월의 향촌(八月的鄉村)」 등을 언급하고 있다.

「조국이 없는 아이」<sup>8)</sup>는 작가 수쥘이 소년시절 경험했던 사실을 소설화한 것으로 작품 속의 화자인 ‘나(果瓦列夫)’는 바로 작가의 자아가 투영되어 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 하얼빈의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을 무대로 주인공 ‘나’는 중국인으로 이 마을에 설립된 러시아학생들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학교 기숙사 앞으로 매일 아침마다 나팔을 불며 소를 몰고 지나가는 조선인 소년 ‘귀리(果里)’<sup>9)</sup> 알게 된다. 이 소년은 이 중학교의 여선생 수둬파의 소를 돌보는 목동이다. 그는 어리지만 부지런하고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들꽃이 피는 계절이면 소를 몰고 초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들꽃을 따다가 마을의 처녀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낭만적인 품성도 있다.

조선의 귀리의 부모는 원래 조선의 한양에 살았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인이 한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항의하여 총독부를 습격하고 일본군을 살해한다. 결국 귀리의 아버지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총살형에 처해진다. 귀리의 어머니는 그 피해가 자식들에게 미칠 것을 걱정하여 아이들을

- 6) 「목양애화」에서 한인 민승화(閔崇華)와 그의 양자 윤자영은 반제반봉건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의 자작 민승화는 노비의 아들 윤자영의 신분에 개의치 않고 그를 양자로 삼아 구국의 희망을 당부한다.
- 7) 1931년 9.18사변 이후 동북삼성성 지역에서 남하한 작가들로 샤오쥘(蕭軍), 샤오홍(蕭紅), 수쥘(舒群), 뤼펑(羅烽), 리후이잉(李輝英), 바이랑(白朗), 뤼빈지(駱賓基) 등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일본군 점령 하의 동북지역 농민들의 고난과 저항을 주로 묘사한다. 또한 이들은 고향의 자연경관과 풍습에 대한 회상을 작품 속에 기록하고 있다.
- 8)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는 수쥘이 1934년 옥중에서 집필하였으며, 1936년 5월 1일 『문학(文學)』 제6권 제5호에 발표되었다.
- 9) ‘귀리(果里)’: 한인의 이름으로서 ‘과리(果里)’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수쥘이 작중에서 ‘과리=귀리’라고 명명한 것은 소년의 조국 ‘가오리(高麗)’를 연상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소설의 플롯으로 볼 때, 러시아인들에게 한인의 조국은 ‘조선’보다는 ‘까레이(高麗)’가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데리고 만주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자신은 조선에 남게 된 것이다.

러시아 학생 귀리사(果里沙)는 귀리에게 자신은 CCCP<sup>10)</sup>, 즉 소련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삼아 말한다. 또한,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어(在世界上,已经没有了高丽这国家!)”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학교 기숙사 앞을 지나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간다. 고려인을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귀리사에게 작중 화자인 ‘나’는 안중근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귀리가 일본군에게 장작으로 구타당할 때 ‘나’는 “장작이 내 몸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 「조국이 없는 아이」에서 수천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소련이 건국되었지만 여전히 약소국을 무시하는 러시아인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동시에 중국인과 한인의 항일을 매개로 한 연대감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수천은 중국과 조선이라는 국적을 넘어서 ‘안중근’의 의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귀리가 관리하는 소들의 “애처로운 울부짚음”을 수차례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조국이 없는 아이, 귀리의 내면의 울분을 수천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천의 소년시절이 투영된 작중 화자 ‘나’는 귀리가 “나는 너희 중국인들과 같은 나라조차 없어, 집조차도 사라졌단 말이야(他说的那句“不像你们中国人还有国,我们连家都没有了).”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영광과 같은 느낌(好像什么光荣似的)”을 받는다. ‘나’는 “그러나 며칠 후에는 조국의 깃발이 깃대에서 황망하게 내려지고, 새로 게양되는 것은 다른 깃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의 깃발이라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바로 9월18일 이후의 제89일째 되는 날이었다(但是,不过几天,祖国的旗从旗竿的顶点匆忙地落下来;再升起来的,是另样的旗子了,那是属于另一个国家的——正是九月十八日后的第八十九天),”<sup>11)</sup>

10) CCCP: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의 약어로 영어의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와 같다.

11) 9.18사변이후 일제가 세운 만주국의 수립을 의미한다.



〈그림1〉 만주국 국기<sup>12)</sup>



〈그림2〉 만주국 국기<sup>213)</sup>

「조국이 없는 아이」는 한인의 저항의식을 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인 주인공 ‘나’는 여전히 동정주의적 시선으로 조선인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한인을 항일투쟁의 동지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인의 강인한 정신과 아름다운 성품을 문예형상으로 재현하였다는 것은 근대 이전의 한인에 대한 인식과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샤오권의 장편소설 「팔월의 향춘」은 그의 대표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만주사변 이후 동북인민혁명군이 일본군과 벌이는 전투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혁명군의 지식청년이자 군관 샤오밍(蕭明)은 사령부 비서로 일하는 한인 여성 안나(安娜)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김경석(2011)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안나는 샤오밍의 연인으로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본다. 당시 만주에 있던 많은 한인들이 중국의 인민혁명군에 가담하여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다.

위의 작품들 가운데 소환된 한인형상은, 3.1운동이나 안중근의 의거 등 조선의 항일투쟁, 이전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종적인 시각은 대부분 희석되어 있다. 이들 중국작가들은 한인형상의 묘사를 통하여 피압박민족이 겪는 비극적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에 맞서는 한인의 저항정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인형상의 소환은 당시 중국이 처한

12) 국기의 紅·藍·白·黑·黃은 북양군벌정권이 제정한 중화민국 국기의 오색으로 원래는 五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은 오색을 일본·중국·만주·조선·몽골 다섯 민족의 상징으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황색의 비중을 3/4로 확대함으로써 황인종의 단결, 즉 대동아공영을 상징하였다.

13) 만주국의 국기는 비슷한 형태로 몇 가지가 제작되었다. 이 깃발은 만주국 건국의 이념인 오족협화(五族協和)를 강조한다.

반식민지라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지적 연대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일운동시기의 동지적 연대의식은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가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한국전쟁 시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 3. '항미원조'영화 - 소거된 분단비극

2020년 장이머우 감독은 영화 「원 세컨드(一秒鐘)」<sup>14)</sup>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장이머우 감독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하게 '인간'을 발굴해내는 감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원세컨드」는 문혁시기 편벽한 시골마을의 영화 상영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시골마을에서 상영예정인 영화필름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이를 탈취하려는 중년남성 장주성(張譯 분)과 어린 소녀(劉浩存 분)의 사연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갈등과 화해의 매개물인 필름에 저장된 영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웅아녀(英雄兒女)」이다. 「원 세컨드」와 「영웅아녀」는 부녀상봉이라는 공유점을 가지고 있기에 장이머우 감독은 '영화 속의 영화'로 「영웅아녀」를 선택했다.<sup>15)</sup> 「영웅아녀」의 부녀는 한국전쟁에서 상봉하게 되지만, 「원 세컨드」의 부녀는 스크린에서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상봉할 뿐이다.<sup>16)</sup>

중국의 항미원조 영화의 사료가 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전장에 파견된 작가들의 기록이다. 김정석(2012)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

14) 장이머우는 문혁을 가장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감독이라는 평가에 부응하듯이 이 영화 역시 문혁시기를 시대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장주성은 헤어진 딸이 1초간 나오는, 영화「영웅아녀」 시작 전에 배치된, '홍보뉴스'를 보기 위해 영화필름을 탈취한다.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단의 의구심을 받는다. 2000년대 이후 장이머우의 영화는 체제지향적인 영화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항미원조가 영화 제작의 화두로 자리잡은 시기에 「영웅아녀」를 삽입한 것은 단지 '부녀상봉'을 암시하기 위한 우연이었을까?

16) 영화 「원 세컨드」에서 '항미원조'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정부의 요구에 타협적인 제작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희화화 처리하는 장이머우 감독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읽힐 수도 있다.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에 지원군을 파병하면서 이들과 함께 많은 작가와 예술인들을 보내 전쟁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전선의 상황을 작품으로 기록하여 중국에 알리고자 하였다.

바진(巴金)의 소설 「단원(團圓)」을 영화로 재구성한 「아녀영웅」<sup>17)</sup>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시기 바진은 1952년 3월부터 10월 까지, 중국의 전국문련(全國文聯)이 조직한 조선전지방문단(朝鮮戰地訪問團)의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이 시기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수의 중국군을 만나고 그들의 진술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바진은 귀국 후 전쟁에서 취재한 기록을 바탕으로 14편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1961년 「단원」을 발표하였다. 백지운(2023)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발표와 함께 큰 호평을 받았던 소설 「단원」은 당시 문화차관이자 좌익영화운동의 개척자인 샤옌(夏衍)의 지시로 창춘영화제작소(長春映畫製作廠)를 통해 극시 영화 「영웅아녀」로 개편되었다. …… 원작을 능가하는 명성을 얻은 「영웅아녀」는 지금까지도 항미원조전쟁 영화의 정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영웅아녀」는 군벌통치와 중일전쟁의 혼란기에 생이별했던 부녀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18년 만에 재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중 인물 왕원칭(王文淸)은 군벌정권의 혼란기에 상하이의 인쇄공장 노동자였다. 그의 아내는 외국인 수병의 구타로 사망하였고 자신은 국민당에 체포되면서 어린 딸 왕팡(王芳)은 이웃집에 맡겨졌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왕원칭은 공산군 유격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딸 왕팡의 소식을 전혀 알

---

17) 본래 「영웅아녀」는 현대에 만들어진 제목은 아니다. 이미 중국 청나라 도광(道光)연간(1821~1850)에 만주족 문인 비막문강(費莫文康)이 지은 40회 장회소설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이 있었다. 내용은 무공과 미모를 겸비한 하옥봉(何玉鳳)의 활약을 그려내고 있다. ‘아녀’와 ‘영웅’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바진의 「단원」을 영화로 각색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아녀영웅전」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수 없는 생이별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아버지 왕원칭은 참전부대의 정치위원으로, 딸 왕팡은 역시 참전부대의 문공단원으로 참전하게 된다. 부녀는 이역의 전장에서 동지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그림 3〉 「영웅아녀」를 바라보는 장주성은 항미원조에는 관심 없다.



〈그림 4〉 「영웅아녀」의 원작 「단원」과 부녀상봉

「영웅아녀」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만주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항일투쟁을 다룬 동북작가군의 작품과는 달리 영화 속에서 한인은 단순 조연 이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영웅아녀」보다 이르게 제작되었던 영화 「상감령(上甘嶺)」<sup>18)</sup> 역시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인들에게 항미원조 영화의 대표작으로 각인되었다. 이 영화는 42일간 벌어진 ‘상감령 전투’를 철저히 중국군의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전쟁사에 ‘지하만리장성’으로 기록되는 지하갱도 중심으로 진행된 ‘상감령전역(上甘嶺戰役)’의 전황은 중군기자들에 의해 빠르게 중국 후방에 전해졌다. 이 소식에 감동받은 후방에서는 당시로서는 거액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대량의 위문품과 위문편지 등이 상감령 지하참호의 중국군에게 전달되었다. 상감령 전투 이후, 50년대 후반까지 ‘상감령정신’을 학습하자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항미원조는 이념적으로 중국인민을 단결시키는 코드로 작용하였을 뿐, ‘항미’의 색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에 제작된 항미원조 영화는 ‘항미’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18) 1956년 개봉한 영화 「상감령(上甘嶺)」은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과 김화지구의 오성산에서 벌어진 전투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이에 반비례하여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점차 소거되고 있다.



〈그림 5〉 「영웅아녀」



〈그림 6〉 「상감령」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민들에게 애국애당을 강조하는 드라마와 영화는 오늘날까지 ‘주선울영화’라는 ‘중국특색’의 관방 문화컨텐츠로 생산되고 있다. 당연히 ‘전쟁물’은 따분하지만 애국을 강조(또는 강요)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화컨텐츠 역할을 한다. 시진핑 체제 이전까지 ‘전쟁물’은 주로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소재로 삼고 있었다. 시진핑 이후 주선울영화의 제작은 양적으로도 증가하였고, 미·중갈등이 깊어지는 현재에는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 이후, 항미원조 영화와 드라마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해 10월24일, 13부작 드라마 「전화의 용광로(戰火鎔爐)」, 12월27일에는 40부작 「압록강을 건너(跨過鴨綠江)」가 방영되었다. 영화로는 「금강천(金剛川)」<sup>19)</sup>,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最可愛的人)」이 막을 올렸다. 이와 같은 항미원조 영화의 붐물 가운데 「장진호(長津湖)」<sup>20)</sup>는 그 대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서현(2022:1)은 다음과 같

19) 2022년 10월 개봉 이후 국내 수입 허가로 논란을 빚은 영화 「금강천」은 휴전협정을 앞둔 1953년 7월 강원도 화천 북쪽에서 벌어진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다룬 작품이다. 「장진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투임에도 미군과 중국군의 전투가 주된 내용이다.

20)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6일부터 12월13일까지 벌어진 미군과 중국군의 전투이다. 미군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국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에 포위됐다가 17일 만에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였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중 미군과 중국군 간의 최대 격전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하고 있다.

작년(2021) 영화시장은 독특한 분위기로 흘러갔고, 창당 100주년을 주제로 한 주선율(主旋律) 영화가 중국 영화 스크린의 중요한 기조가 됐다. 주선율(主旋律) 영화 「장진호」가 박스오피스 누적 57억7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개봉된 「전랑2」(56억9천만 위안)을 제치고 「장진호」는 중국 영화 역사 최고 흥행작이 됐다.



〈그림 7〉 「장진호」



〈그림 8〉 「장진호: 수문교」

「장진호」는 제작진과 주연배우들부터 호화롭게 구성하였다. 천카이거(陳凱歌)와 쉬커(徐克), 린차오셴(林超賢)이 감독으로, 주연배우는 이미 「전랑」의 주연이었던 우징(吳京)과 아이돌 스타이자 가수인 이양첸시(易烊千璽)이 등장한다. 이로 볼 때 중국정부의 「장진호」 흥행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짐작할 수 있으며, 미·중대립의 ‘관변홍보물’로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

물론 「장진호」 흥행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중국의 포털사이트 별점평가(豆瓣評分)에서 「장진호」는 7.6을 받음으로써 중국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 비하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영화소비층이 집권세력과 상업자본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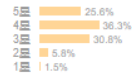
## 长津湖 (2021)



导演: 陈凯歌 / 徐克 / 林超贤  
 编剧: 兰晓龙 / 黄建新  
 主演: 吴京 / 易烊千玺 / 段奕宏 / 朱亚文 / 李晨 / 更多...  
 类型: 剧情 / 历史 / 战争  
 制片国家/地区: 中国大陆 / 中国香港  
 语言: 汉语普通话 / 英语  
 上映日期: 2021-09-30(中国大陆)  
 片长: 176分钟  
 又名: 冰雪长津湖 / 抗美援朝 / 长津湖之战 / The Battle at Lake Changjin / Battle of Chosin Reservoir  
 IMDb: tt13462900

豆瓣评分

7.6 ★★★★★  
 382380人评价



好于 59% 战争片  
 好于 62% 历史片

〈그림 9〉「장진호」 별점 평가

「장진호」의 흥행몰이를 이어가기 위해 속편 「장진호: 수문교(長津湖之水門橋)」<sup>21)</sup>를 제작하고 2022년 개봉하였다. 「장진호」 개봉 1년도 안된 시점에 속편이 개봉된 것으로 볼 때, ‘장진호’를 향미원조 콘텐츠로 한번만 우려내기에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시진평 체제의 의도가 느껴진다. 이 영화는 중국군이 신흥리와 하갈우리의 전투 이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장진호」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한인들이 희생된 전쟁임에도 두 편의 영화에서는 미군과 중국군의 혈전만 묘사될 뿐<sup>22)</sup>, 조선인민군이든 한국군이든, 한인은 영화의 소품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1950년 겨울, 백설로 채색된 함경남도 장진군의 산하는 한반도가 아닌 마치 시대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무협소설의 그 어떤 불특정의 공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기환(2023)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영화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 21) 2022년 개봉한 「장진호: 수문교」 역시 「장진호」의 감독들이 그대로 메가폰을 잡았으며 「장진호」에서 형제로 출연했던 우징과 이양첸시를 비롯한 주요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 22) 미국은 초신호 전투(Battle of Chosin Reservoir)라고 기록한다. 장진(長津)의 일본어 독음인 ‘초신(ちょうしん·chosin)으로 일제가 제작한 지도대로 표기한 것이다. 미 제1해병사단 본부 캠프 팬들턴(미국 샌디에이고 오션사이드 소재)지치 안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장진(Jangjin)’이라는 영문표기는 없다. 한국전쟁에서 한반도가 소거되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는 관객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화에서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등장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의 전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군요.

「장진호」의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자리를 뜨지 못하고 거수경례를 하는 관객의 머릿속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그곳에 사는 이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에 대해 일말의 인도주의적 연민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때 중국은 미국주도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에 합류하기 위해서 항미원조라는 이념 대립의 산물을 대중문화로 소환하는 것을 금기시 하던 시기가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의 시기를 경험했고, 한때 이상국가의 모델로 삼았던 구소련의 몰락을 목도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중국인들은 G2국가의 위상을 중국몽의 실현과 등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집권체제는 이러한 대중적 중국몽의 열기에 풀무질을 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항미원조’물은 정작 한반도의 비극은 소거된 채,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위대한만 부각시키는 패권주의적 블록버스터로 재생산될 우려만 커지고 있다.

### Ⅲ. 한인형상 - ‘항일’가운데 연대와 ‘항미’가운데 소거

2021년 10월, 주북한 중국대사와 관계자들은 장진호 전투 전사자 묘지를 참배하고 헌화하였다. 10월 24일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리진권(李進軍) 주북한 중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23일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읍을 찾아 인민지원군 열사릉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인민지원군이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참배행사는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기념일(10월25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2021년으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 공산당은 한국전쟁 참전을 “역사적 결단에 따른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한국전쟁에 대해 “미 제국주의의 난폭한 도발에 맞서 전쟁으로 전쟁을 멈추고, 무력으로 전쟁을 멈춤으로써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면서 “패권주의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한다. 이는 마치 6,70년대 냉전시기의 미·중관계를 보는 듯한 언급이다.

백지운(2023)은 한국전쟁 이후, 10년 주기로 중국의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항미원조의 주체를 보는 시각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960년, 1970년 1980년의 항미원조전쟁 기념 사설은 ‘중국공산당’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조선노동당의 영도”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언급되었을 뿐, 문장의 거의 모든 주어는 ‘중국인민’, ‘조선인민’, ‘중조인민’, ‘인민군대’였다. 1990년 사설에서는 ‘조선인민군’도 등장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는 2000년의 『인민일보』 항미원조전쟁 기념 사설에서 ‘조선’,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지원적 성격이 아니라 전쟁의 주체였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며 전쟁의 당사자는 북한과 남한이 아닌, 중국과 미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조선의 혁명을 지원”한다는, 사회주의체제의 국제적 연대의식은, 21세기 중국의 집권세력에게는 불편한 기억이거나 부도수표에 불과할 것이다.

‘항일’과 ‘항미’, 반제국주의 연대라는 가치를 내걸었던 역사시기를 문예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항일소설’에서 적극적으로 소환되던 한인형상은 ‘항미원조’속에서는 그 존재가 사라진다.



〈그림 10〉「압록강을 건너」



〈그림 11〉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평터화이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만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승리했다라면, 결국 일제가 한반도를 병탄했더라도, 중국은 청일전쟁 역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고자 분투했던 영웅적인 전역이었다고 기술하지 않았을까?

#### IV. 맺음말 - 주중의 서사에서 공존의 서사로

중국은 진(秦)나라 이후 2천 여년을 지속되어 온 제정체제가 막을 내린 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났다. 중국은 그 한 세기의 역사시기를 거치면서 인류 근대사에서 드물게 두 번의 혁명을 경험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은 2011년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그 기간 중 중국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난 100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성찰적 自問을 하였다. 이는 ‘근대성의 수용’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세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이웃 나라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중국은 봉건체제의 종식 이후 인접국가에 대한 중화주의적 시각을 내려놓았는가? 대한제국의 멸망과 항일운동, 제국으로부터 해방, 곧이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과거 봉건적이고 주종적인 인식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성찰할 때, 지난 100년의 역사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전쟁을 소재로 한 모든 문예는 전쟁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성찰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인문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고 공고히 하는 선전물로 사용된다면 이는 영화가 아닌 현실의 비극으로 재현될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국전쟁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족상잔의 비극’, ‘조국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등, 한국전쟁이라는 하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상이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항미원조영화 봇물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유점을 찾는 작업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임을 증명할 뿐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70여 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너무나 다르다. 죽의 장막을 거두고 ‘대국’으로 ‘굴기(屈起)’했고 미국과 어깨를 맞댄 G2강국으로 성장했다. 1949년 10월, ‘혁명1세대’가 천안문의 누대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할 당시 중국은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주의 대국으로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을 천명했었다. 21세기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동서문명교류의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천년 이상 지속해 온 패권적인

중화주의의 시각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주변 국가에 대한 주종적 시각을 벗어나 한반도의 비극을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과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한 참전한 모든 국가의 ‘인민’들의 희생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성찰의 서사로 기억할 때 G2의 위상에 맞는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郭沫若(1983), 「牧羊哀話」, 『郭沫若選集』(文學卷), 人民文學出版社.
- 蕭軍(1981), 「八月的鄉村」, 『蕭軍五十年文集』, 黑龍江人民出版社.
- 舒群(2011), 「沒有祖國的孩子」, 『舒群集』, 黑龍江大學出版社.
- 陳獨秀(1993), 『陳獨秀著作選』제1권, 上海人民出版社.
- 「長津湖」(2021), 陳凱歌 徐克 林超賢 감독, 北京博納影業集團有限公司.
- 「長津湖之水門橋」(2021), 陳凱歌 徐克 林超賢 감독, 北京博納影業集團有限公司.
- 「一秒鐘」(2020), 張藝謀 감독, 北京欢喜首映文化有限公司.
- 「金剛川」(2020), 管虎 郭帆 路陽 감독, 中國電影股份有限公司.
- 「跨過鴨綠江」(2020), 董亞春 감독, 中央广播电视总台.
- 「英雄兒女」(1964), 武兆堤 감독, 長春電影製片廠.
- 「上甘嶺」(1956), 沙蒙 林彬 감독, 長春電影製片廠.
- 백지운(2023),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항미원조』, 창비.
- 클라우스 뮐한 지음, 윤형진 역(2023), 『현대 중국의 탄생』, 너머북스.
- 이선이 외(2012), 『동아시아 근대 한인론의 지형』, 소명출판.
- 황슈지 저,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역(1990), 『중국현대문학발전사』, 범우사.
- 한담(2018), 「탈혁명시대 중국 항미원조 기억 서사의 난처함: 영화「나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제87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 김경석(2011), 「중국의 근대조선인식, 그 임계점의 문예형상화」, 『중국소설논총』제34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47-166.
- 최승현(2006), 「근대 중국인의 한국관 변화과정 연구」, 『중국인문과학』제30집, 중국인문학회, 517-533.
- 박명희(2004), 「清末民初時期 中國朝野의 對韓國觀」, 『중국근현대사연구』제2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1-34.
- 김중훈(2023.04.30.), 「中 방송 ‘항미원조’ 드라마 긴급 편성…‘윤석열 연

설' 의식했나», 『머니투데이』.

<https://blog.naver.com/uioso/223089125497> (검색일: 2023.05.03.)

한담(2023.03.17.), 「중국, '항미원조' 아닌 평화의 가치로 한국전쟁 기억해야», 『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https://blog.naver.com/donghlee1001/223050591096> (검색일: 2023.05.03.)

홍서현(2022.01.26.), 「지난 해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 세계1위... 주선율 영화 가장 주목», 『아주일보』.

<https://www.yazhouribao.com/view/20220126164216164>(검색일: 2023.05.03.)

이기환(2023.05.08), 「중국 애국주의 영화 원조는 「상감령」,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l/cover/khnm.html?mode=view&artid=202110221442011>(검색일: 2023.05.08.)

❖ ABSTRACT

## A Study on the Way of China Summoned Korea's Anti-Japanese Movement and History of Division

Kim, Kyungseog  
Kyunghee University

Prior to modern times, China maintained a feudal state relationship with Korea. This Korea-China relationship originated from the Chinese worldview. After the Opium War, China became the subject of invasion by the imperialist powers. In this way, it has been reduced to colonies and anti-colonies by the force of imperialist powers, and China and Korea share similar modern and contemporary experiences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process, the two countries have a similar sense of solidarity. This sense of solidarity is summoned as a figure in literary works. After the defeat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China experienced a war of ideology called the Korean War. In this war, China dispatched troops to North Korea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socialist country. However, in the 21st century, the history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erased in the memory of "Anti-U.S & support North Korea." to the Korean War. This elimination is evident in the movie "Main Melody Films" based on "Anti-U.S & support North Korea".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2 that China had in the 21st century. In this paper, we attempt to learn about the perspective of Chinese literature, such as novels and movies since modern times, summoning Korea's anti-Japanese movement and division history.

Key Words: Perception in Korea, Anti-Japanese Movement, Korean War, Division History, Main Melody Films, Anti-U.S & support North Korea.

■ 논문투고일 : 2023. 05. 10

■ 심사완료일 : 2023. 06. 06

■ 게재확정일 : 2023. 06. 09